

# 북한을 위한 기도

2026년 9월



# 1. 북중 교류 활성화와 선교의 기회 확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6월 8~9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잇따른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신압록강대교의 북측 세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관련된 화물차 전산 등록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이 북한 선교의 문이 넓혀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강화된 국경 통제와 디지털 감시 체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안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북중 경제 협력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기여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랜 국경 봉쇄로 고통받던 북한 주민들에게 북중 경제 교류 확대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양국이 밀수 등 비공식무역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검역, 통관 절차는 전에 비해 복잡해지면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교류가 개인 보다는 규모 있는 기관이나 기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무역에 필요한 외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 환율과 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경제 협력이 정권과 특권층의 외화벌이에만 그치지 않고, 물가 불안과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식량과 생필품의 수급이 원활해지고, 고단한 주민들의 일상에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평안이 주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한반도 통일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의 기반이 되어 온 민족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서도 점차 약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통일과 민족 개념을 모두 폐기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충돌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닐 것입니다. 북녘의 동포들과 지하성도들을 생각할 때 통일을 위한 노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통일과 평화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반도 전역을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하는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교회가, 이러한 뿌리와 자산을 잘 지키고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4.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인접국 간의 관계가 밀착되는 가운데 선교 현장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종교 통제를 위한 여러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북중 국경을 방문하는 여행팀에 대한 단속과 통제 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또한 자국 내 체류하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디지털 감시와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여전히 억류 중인 가운데, 지난 1월에 체포되신 박 모 선교사님에 대한 재판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일선의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특히 갇힌 선교사님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일부 지역 경찰이 재중 탈북민에게 보고용으로 사용하게 한 촬영 앱. 촬영 시간, 위치, 단말기 식별번호 등이 사진에 자동으로 삽입된다. (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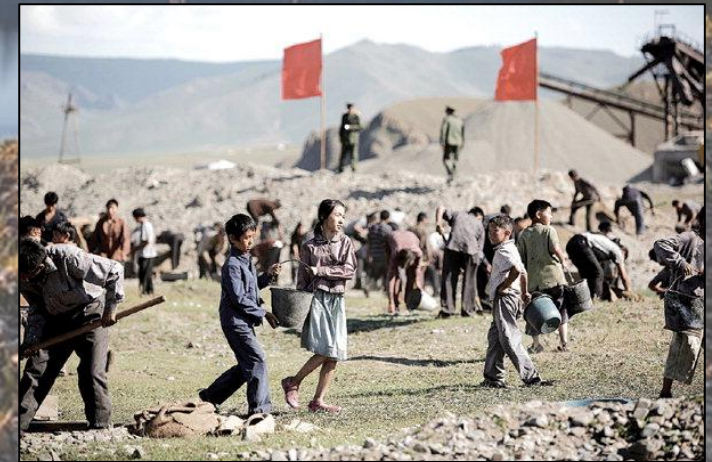
##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갇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관련 미디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는 등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의 경우, 억류 기간이 만 1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 교회 성도와 강제 북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교회 성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화 크로싱에서 묘사한 북한 수용소

## 6. 수해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북한 내 4,300여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00여명이 넘게 사망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북한은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경제 사정과 전기 사정 등을 생각할 때 에어컨 등 폭염에 대비한 설비를 갖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7.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큰 비로 인해 중국 동북지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체류 북한 여성들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큼, 이번 수해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많은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이 수해로 인해 경작하는 옥수수밭이 침수되고 비닐 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경우 수해가 농작물을 넘어 직접적으로 생활 현장을 위협하여 집을 버리고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수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